

“불교, 사회 참여 강박에서 벗어나야”

조성택 교수, 16일 ‘불교평론’ 기획논단서 주장

“한국불교계는 근대 이후 보편화된 사회 참여에 강박관념과 같이 매몰돼 있다. 만해, 한암, 성철 스님이 보여준 사회참여 방식과 같이 불교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근대화 과정에서 이웃종교가 활발히 진행한 정치참여, 사회참여에 불교가 맹목적으로 뒤따라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사진)는 불교평론이 4월 16일 개최한 기획논단 ‘한국불교 정말 괜찮은가’ 세 번째 마당에서 “한국불교가 근대기 사회참여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불교만의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흥미로운 것은 세속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한 기독교는 ‘영성’ 가치를 요구받고 있으며 불교는 세속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불교적 가치의 사회적 실현’을 요구받고 있다”며 “기독교가 왜 다시 영성을 탐구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이라는 전통불교의 형태에서 정치사회 참여의 목소리가 커지며 불교 내부에도 불의의 권력에 저항하는 정치참여, 환경 생태문제에 대한 사회참여, 사회복지 전개 등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교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한국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하나는 물질적 구체화이며 또 하나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산시켜 나가는 정신적 구체화이다”라며 “불교계가 물질적 구체화에만 치중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불교가 사회참여에 앞서 과연 불교가 믿는 가치를 시민사회에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이 옳기만 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사회적 문제에 참여, 혹은 개입



불교 맹목적인 사회참여 비판

기독교 영성 복귀 움직임 주목

“사회 참여 앞서 점검·성찰해야”

을 한다면 불교 정체성을 지키지만 사회공공선 또한 고려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공공선과 종교적 선은 합치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기독교의 예를 들며 “낙태나 동성애의 경우 기독교의 반대 입장이며 이를

사회에 전파하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신념이 사회적으로는 타당하기”라고 반문했다.

이러 조 교수는 한암 스님과 만해 스님의 상반된 사회참여 방식을 예로 들었다. 조 교수는 “만해 스님은 불교전통의 보수성으로 시대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여겼다. 만해 스님은 대승의 방편과 선종의 입전수수가 있지만 출가기반의 보수성의 한계를 느끼고 불교 내부의 논리가 아닌 사회진화론과 같은 세속의 이론과 논리로 불교유신 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반면 한암 스님은 철저히 현실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는데 이는 만해 스님이 개혁을 통해 현실을 부정한 것과 같이 외면을 통해 현실을 부정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성철 스님의 사회참여에 대한 비판 또한 있지만 이 역시 이러한 경지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참여를 한 것”이라며 “불교가 사회참여에 앞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경주 불국사, 사물인터넷과 만나다

어플 ‘내 손안의 불국사’... 최신 모바일IT기술 접목

입체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 증강현실 체험도 눈길

최신 모바일IT기술과 한국문화의 보고(寶庫)인 전통사찰이 만난다면? 사물인터넷·증강현실·위치인식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불국사’가 개발돼 화제다.

문화재청은 4월 15일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불국사’를 개통했다. 이번에 개발한 ‘내 손안의 불국사’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가미해 관련 사진과 동영상, 3차원 입체영상 등으로 총 80여 건에 이르는 불국사 관련 콘텐츠를 수록했다. 불국사 소개·나의 불국사·불국사 이야기라는 3가지 메뉴로 관람정보, 문화재정보, 주변 관광정보와 같은 기본정보 제공을 비롯해 직접 찍은 사진들을 저장하고 관람후기도 작성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문화재 인근에서 앱을 작동하면 애니메이션 효과 및 설명, 입체영상 등을 보여준다.

눈길을 끄는 것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활용성이다. 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불국사 이야기’ 메뉴에는 주요 건축물과 문화재에 대한 설명문과 사진, 3차



‘내 손안의 불국사’ 어플 초기화면

원 영상으로 안내하는 ‘일반 모드’, 친근한 캐릭터들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문화재에 담긴 이야기를 전하는 ‘인물 모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학습하는 ‘퀘스트(탐구) 모드’, 불국사와 같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석굴암을 동영상과 파노라마로 감상하는 ‘특별전 시판’ 등이 구성되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내 손안의 불국사’에 앞서 ‘창조 비타윈 프로젝트’ 일환으로 2013년 ‘내 손안의 덕수궁’과 2014년 ‘내 손안의 경복궁’을 선보인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제24회 행원문화상 각 부문 수상자 공모

학술·예술 분야... 6월 30일까지

불교문화 부흥과 교육 발전을 위해 학술과 예술분야의 공로자를 발굴해 선정하는 행원문화상이 올해로 24회를 맞았다.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문·사진)이 2015년 행원문화상 학술상과 예술상의 수상자를 공모한다.



학술상은 불교와 불교학 발전에 뛰어난 학술연구 저서(역주 포함)를 출간한 공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2년 이내 출간된 학술연구 저서가 심사 대상이다.

또 예술상은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음악·악기·미술·연극·무용 등 예술분야(서화·부문 제외)에서 업적을 이루거나, 방송·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포교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수여한다.

행원문화상은 학술과 예술분야 공로자 2명을 시상하게 되며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응모자는 서울 서초동 재단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runner333kr@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마감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수상자는 오는 8월 중순경 개별 통보 및 교계 언론을 통해 발표된다. 시상식은 9월 16일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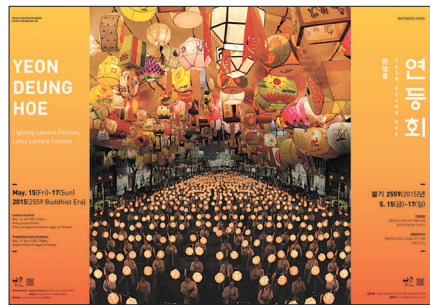
전국 부처님오신날 준비 ‘START’

연등회 포스터 및

봉축 현수막 시안 발표

서울 조계사도 봉축선포식

무차대회 준비도 진행 중



연등회 포스터(사진 왼쪽)와 조계사 봉축 선포식(사진 오른쪽) 불교계는 봉축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올해에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및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가 함께 진행될 눈길을 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부처님오신날 포스터와 현수막을 발표했다. 부처님오신날 포스터에는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이 적혀 있으며, 연꽃을 수지한 보살의 손이 눈에 띈다.

연등회 포스터도 함께 공개됐다. 올해 연등회 포스터는 국·영문 포스터 2개가 한 세트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연등회 관련 소형 홍보책자도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소형 책자 역시 한국어와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등으로 제작됐다.

전국 사찰들도 본격적인 봉축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 연등회의 주요 무대인 조계사(주지 원병)도 4월 11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축 선포식 ‘와락’을 개최했다. 조계사 신도 200여 명이 참석한 이

번 선포식에서는 축하공연과 울동배우기 등으로 봉축준비를 위한 단결을 다짐하고 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사 주지 원병 스님은 “봉축 준비에 앞서 울동을 배우며 건강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이번 봉축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연등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와락’이라는 이름처럼 이웃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부처님 오신날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조계사는 앞으로 정오의 힐링 ‘소리나눔 콘서트’(4월 23일~5월 22일 매주 목·금), 동자승 단기출가 ‘보리수 새싹학교’(4월 26일~5월 26일), 이야기로 만나는 부처님 ‘경전을 읽다’(5월 9일) 등의 일정을 통해 봉축의 기쁨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올해 광화문 광장에 열리는 평화기원대회 및 간화선무차대회 준비 역시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세계평화 기원대회 봉행위원회는 최근 전법회관 2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개소했으며,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일반직 종무원들이 파견 근무하며 대회를 준비 중이다. 광복 70년을 맞아 열리는 세계평화 기원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고승 300여 명과 불자 20여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은 15일 초청인사 입국 후 16일 현충원 참배에 이어 오후 2시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종교인 회의가 진행된다. 이어 연등회 일정에 맞춰 세계평화 기원행진과 함께 광화문에서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가 진행된다. 간화선무차대회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평화메시지’가 발표된다.

17일 오전 9시 조계사에서는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수륙무차대제가 진행되며 오후 1시부터는 연등회 문화행사 순례 및 봉은사 전통문화체험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신성민·정혜숙 기자

“반기문 총장 직접 만나 평화 메시지 전달”

정여 스님 5월 5일, UN 본부서 10만\$ 구호기금 전달

라오스와 미얀마 등 국내의 구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세상을 향기롭게(대표 정여)는 4월 16일 부산불교연합회 전법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 5일 UN 본부를 방문해 반기문 총장을 만나고 세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여 스님은 “반기문 총장에게 세계평화를 위해 북한 방문을 부탁할 것”이라며 “남북이 협력해 비무장 지대 공원을 조성해 물물교환의 장을 만들어 서로 돕고 평화 통일의 기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여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며 아프리카 식량 및 급수지원 사업기금 10만 달러를 반기문 총장에게 전달한다. 5월 5일 열린 전달식에는 세상을 향기롭게 대표 정여 스님, 정오 스님(장안사 주지), 도명 스님(여영정사 주지), 원담 스님(충북 무극정사 주지)도 함께 참석한다.

정여 스님은 “사업기금은 아프리카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영양 실조로 어려움

을 겪는 아기를 위해 사용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아프리카에도 불교 포교를 위한 바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아프리카 후원 사업도 정기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상을 향기롭게 대표 정여 스님은 2008년 범여사 주지를 역임, 북한 어린이 신발 지원 사업을 영위하는 참여불교운동본부 이사장, 북한 어린이 생필품 및 신발 보내기 사업의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독거노인 무료급식소 민들레자비원 등을 운영했다. 2011년 (사)세상을 향기롭게를 개설하고 UN 기구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 어린이 급식지원 및 난민구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세상을 향기롭게는 국내 무료급식 및 장학금 지급, 독거노인 생계비, 외국인 근로자 심터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사업으로는 라오스 청허·보리 영어 학교 운영비를 매월 지원하며 미얀마와 중국 연길 등에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장병위문 및 수계식 법회 동참 스님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훈련병 5천여명이 오게 수계를 받았다.

- 승가종 종정 월인 대종사
-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정산 대종사
- 대원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오 스님
- 대구 동화사 선오 스님
- 대구 동화사 증운 스님
- 승가종 종회의장 혜륜 대종사
- 승가종 원로원장 혜공 대종사
- 승가종 경북 증무원장 지운 대종사
- 승가종 울산 증무원장 도성 스님
- 승가종 포교원장 도안 스님
- 승가종 월인 문도장 법종 스님
- 승가종 총무원장 법수 스님
- 승가종 재무원장 무착 스님
- 승가종 부산 증무원장 봉선 스님
- 승가종 원로위원 포운 스님

- 승가종 비구니 회장 법해 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영월 스님
- 지장사 현오 스님 ● 무상암 지해 스님
- 천지암 달오 스님
- 수월정사 원명 스님
- 대원불교조계종 사서실장 무량 스님
- 천운사 법경 스님
- 정광 스님 ● 선웅 스님
- 법주 스님 ● 선견 스님
- 선조 스님 ● 효득 스님
- 심정 스님 ● 혜전 스님
- 승가종 총무원 원해 스님
- 승가종 총무원 원광 스님
- 승가종 총무원 원타 스님
- 법성 스님 ● 무찰 스님

- 무량사 법산 스님
- 영통암 성봉 스님
- 영통암 성심화
- 보성사 조선재
- 보성사 백경희
- 보성사 원명 스님
- 오성사 법오 스님
- 해동선원 지덕 스님
- 양지암 정연 스님
- (대전)서래암 법지 스님
- 구룡선원 보운 스님
- 천운사 마산포교원 법성 스님
- 수월정사 우정 스님

종정 주석사찰 서래암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골로7번길 43-1

전화 : (051)552-8554, (051)556-0278 전송: (051)556-8551